

진도군, 어린이들에게 균형 잡힌 식사 지원

진도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어린이 급식소 위생·안전·영양관리 순회 교육 실시



진도군이 어린이들에게 균형 잡힌 식사 지원을 위해 위생·안전·영양 관리 순회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18일 진도군에 따르면 진도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대면·비대면으로 지난 3월 15일부터 어린이 급식소 20개소의 조리 종사자와 원장, 교사 등을 대상으로 방문 지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위생·안전 순회 방문을 통해 ▲조리실 시설

환경관리 ▲개인위생관리 ▲원료사용 ▲보관 관리 등에 대한 지도·교육을 실시했다.

또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레시피 사용 ▲알레르기 조사 ▲적정 염도 제공 ▲배식지도 등에 대한 교육도 함께 진행했다.

특히 조리실 위생특화사업으로 코로나19와 식중독 예방을 위해 염소 소독제, 행주, 앞치마 등 조리실 위생·안전 물품도 지원할 예정이다.

진도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계자는

“급식소 순회 방문을 통한 어린이, 학부모, 원장, 교사, 조리사 등의 교육 지원과 연령별 맞춤형 식단 제공 등으로 어린이들의 건강한 먹거리와 안전한 급식소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2021년부터 3년간 송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운영을 통해 ▲영양·위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어린이 급식용 영양식단 개발 ▲위생·안전관리 실태 파악 ▲집단급식소 급식 운영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완도 청산도의 봄, 일상 회복으로 성큼

지난 주말 6천5백여 명 방문

완도군은 3년 만에 개최한 '2022 청산도 슬로걷기축제'에 지난 주말에만 6천명이 넘는 상춘객이 찾아 봄을 정취를 만끽했다고 밝혔다.

청산도는 약 2천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섬으로 푸른 바다, 산, 구들장 논 등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전통 문화가 어우러져 지난 2017년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로 지정됐다.

매년 봄이면 유채꽃과 청보리 그리고 11개 코스의 슬로길을 찾는 관광객들을 위해 슬로걷기축제를 개최했으나 그동안 코로나19로 개최하지 못했다.

올해 '청산도 슬로걷기축제'는 '청산도의 봄, 회복의 시작'을 주제로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다.

청산도 슬로걷기축제 개최로 주변 관광지와의 지역 상권도 활기를 되찾았다.

코로나19로 문을 종종 닫아야 했던 완도타워는 지난 주말 1,400여 명이 다녀갔으며, 완도연안여객선터미널은 청산도행 여객선을 이용하기 위한 방문객들로 붐볐고, 식당은 늦은 시간까지 손님들로 북적였다. 기동취재본부

진도=조상용 기자

강진쌀귀리 된장·고추장으로 맛과 영양 한번에 잡는다



K-FOOD에 세계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강진군에서는 쌀귀리를 이용한 전통장류를 글로벌 소스로 도약시키기 위해 연구개발에 한창이다.

강진된장영농조합법인(대표 최향심)은 지

난해부터 전남식품산업연구센터와 공동연구로 향산화 활성이 우수한 발아 귀리 소재 개발을 완료하고 '발아쌀귀리' 된장·고추장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발아란 종자가 수분을 충분히 흡수한 후

강진된장영농조합법인, 개발 박차

지난해 DIY고추장 세트 판매 화제

다양한 대사 과정을 거쳐 어린뿌리와 어린싹이 나오는 과정으로, 이 과정에서 각종 효소, 영양소 등의 활성화로 영양분이 최대로 갖춰지며 풍미 또한 향상된다.

현재 개발 중인 발아귀리 장류로 맛과 영양을 동시에 잡아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을 계획이다.

귀리는 세계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로 단백질, 칼슘, 필수아미노산 함량이 풍부하며, 베타글루칸 성분이 다양 함유돼 혈당과 혈액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도움을 주고, 면역력 강화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아베나쓰라미이드 성분은 곡류 중 귀리에만 특이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향산

화, 항염증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강진군은 건강 기능성이 높은 쌀귀리를 소비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전식, 고추장, 떡 등의 다양한 가공식품을 개발, 판매하고 있다. 특히, 강진된장영농조합법인의 쌀귀리 고추장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해에는 트렌드를 겨냥해 소비자가 만들어 먹는 DIY(Do It Yourself) 고추장 세트를 개발해 판매했다. 맛에 직접 담그는 재미까지 더해져 흡수 판매 매출 2억 원을 달성했으며, 현대백화점에 입점돼 소비자에게 강진 전통의 고추장 맛을 선보이고 있다.

송승인 친환경농업과장은 “우수한 지역대표 농산물인 쌀귀리를 활용한 전통장류와 같은 차별화된 지역 특산품을 개발해 농가 소득기반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다양한 강진 쌀귀리 제품은 초록민음 직거래지원센터(☎061-433-8844/www.gangjin.center)를 통해 구입할 수 있다.

강진=김영일 기자

“해남으로 귀농귀촌 하세요”

해남군 박람회 활발...올해 8차례

해남군이 올해 귀농·귀촌을 위한 도시민 유치 활동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해남군은 오는 4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되는 2022 귀농귀촌 청년창업 박람회에 참가한다.

농협과 연합뉴스에서 공동주최하는 귀농귀촌 청년창업 박람회는 aT센터 제1전시장의 전시홍보관에서 실시되는 오프라인 행사와 함께 온라인관을 병행해서 진행된다.

해남군은 행사가 진행되는 3일간 상담부스에서 귀농·귀촌 지원정책 홍보와 상담을 실시하고 고구마, 배추, 무화과 등 해남 특산품 전시와 주요 관광지 홍보, 청년 정책 등 긍정 시책 안내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해남군은 이번 박람회를 포함하여 전국단위박람회에 총 8회 참가할 계획으로, 전남 시군 중에서는 가장 많이 참가해 귀농·귀촌 유치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해남군에서는 올해부터 귀농·귀촌 지원을 확대하여 영농정책 도우미 및 자녀 학자금 지원, 이사비용 지원 등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동취재본부

장흥 부산면 지동마을 망향제...수물민 애환 달래

한국수자원공사 전남서남권지사·부산면행정복지센터 후원·부산면 번영회 주최

지난 14일 장흥댐 건설로 고향을 잃은 장흥군 부산면 지동마을 주민들의 아픔을 달래기 위해 '제14회 지동마을 망향제'행사가 열렸다.

장흥군 부산면 지동마을 망향의 제단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지동마을 수물민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지동마을 주민들은 정든 고향이 활력 넘치던 시절을 기억하며, 향우들을 만나 실향의 아픔을 위로했다. 지동마을 망향제 행사는 한국수자원공사 전남서남권지사·부산면행정복지센터 후원과 부산면 번영회(회장 홍영배)주최

로 매년 개최된다.

홍영배 부산면 번영회장은 “정성을 다해 준비한 제수 음식을 공순한 예로 망향제를 올렸으며, “모두에게 행복과 건강, 부산면의 번영이 깃들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김소향 부산면장은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현장 회의에 참석해 주신 이장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현장 행정을 통해 면정 현안이 이해될수 있도록 소통 행정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도영 기자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